

## 政治 발전과 大學의 역할

申 鉉 直

(啓明大 法學科)

### 1. 머리말

'80 년대의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다양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부문에 있어서는 격렬한 이념적·물리적 대립과 투쟁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발전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각종의 민주화여로의 변혁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귀착되어야 할 政治 民主化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官僚的 權威主義가 거센 저항을 보이고 있다. '60 년의 4·19 혁명과 '80 년의 봄이 未完으로 끝나고 '87 년 6 월 항쟁도 시민혁명적 성격을 상실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 발전에 대한 환상 내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질서는 질적 변혁을 가져오지 못하고 단순한 재편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이며 남아 있는 과제 또한 크다.

그동안 각종 영역에서 분출되었던 요구들은 정치 영역에서의 정착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로서의 교수나 대학인들을 찾고 있다. 최근 각종 현안 문제에 관한 매스컴의 토론 프로들을 보면 국민과 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원칙론만을 교과서적으로 되풀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우리의 학문 수준이 현실 인식이나

그에 기초한 이론 정립을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구체적 전문성을 깊이 있고 실천 가능한 수준에까지 요구해 오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90 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大學의 社會的 機能을 재음미해 보고,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政治 發展이란 과제에 있어서 大學의 役割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大學의 社會的 機能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고 얘기된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에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교수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교수·사회 봉사의 세 가지 기능은 별개의 것으로서 그 존재 의의가 극소화되며, 밀접한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리의 대학은 이러한 종합적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권력으로부터 강요당해 왔다. 즉 대학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을 분리시키고, 학생의 주체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교수로 하여금 행정 조직상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단순히 관리하도록 틀어지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場을 상아탑이

란 미명 아래 학내에만 묶어 두고, 교수에게는 연구와 강의 및 학생 지도만을 요구하고 학생에게는 단순한 면학만을 가치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어느 집단과도 달리 대학은 계속적인 개인적 이해 관계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진리와 양심의 장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社會의 政治的 狀況 내지 變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학생은 사회적 양심 내지 피압박 계급의 대변자라는 정의감과 저항 의식 및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으므로 인하여 더욱 그러하다. 4·19 이후 어떠한 탄압을 무릅쓰고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내지 억압받는 민중의 의사를 기꺼이 대변하려 했던 유일한 세력이 바로 대학생들이었음은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총대 대학의 기능을 연구와 교육이라고들 얘기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때에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누가(주체) 무엇을(대상) 어떻게(방법) 할 것인가의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研究란 단순한 학습과는 다르다. 즉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창조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탈정치적·탈사회적·탈역사적인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상아탑'적 인식은 결국 살아 있는 학문 연구를 불가능하게 하며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동안의 우리 대학의 학문 연구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채 소위 '순수성'이란 이름 아래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현실에 유용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桌上空論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단순한 선진 외국의 이론 도입 수준을 탈피하여 한국 현실을 해명하고 바람직한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적 자각과 연구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것은 개별 연구의 수준에서는 어려운 작업들이므로 實際的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루어 보려는 노력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결성된 學術團體聯合會와 금년에 결성된 地域學術團體協議會 등은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근거로 한 새로

운 학술 이론의 모색을 위한 공동 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教育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있다. 종래의 서구 이론의 소개서인 교과서를 단순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학문적 욕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학생들의 요구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서 학생들로부터 도리어 배척당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배우는 자들에게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학생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비학술적인 것일지라도 적어도 학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학술 이론의 현실 적용에 앞서 필요한 학문적 배경과 과정 내지 방법론적 조망을 이해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의 현실 인식과 학문적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에 대한 관심 내지 실천에 있어 학생 주도의 교육 내용 변화에의 요구에 연구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연구의 장에서는 항상 지배 집단 내지 정권과의 갈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연구자들의 자세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여기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社會奉仕의 기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학문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학문이 될 수 없으며, 피교육자와 사회로부터 배척되거나 무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 사회의 變革期에 일반 대중들이 요구하는 大學의 機能은 무엇일까? 단순히 누구나 아는 원칙론을 되풀이하거나 극히 현학적인 용어를 나열하는 것을 대학인의 전문성이라고 보아주던 시대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복잡하고 어려운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리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알면서도 말

하지 않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학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 위에 존립하고 있는 대학의 자기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 3. 政治發展과 大學과의 관계

정치 발전이란 과거의 독재 정치 내지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의 정치를 청산하고 政治의 民主化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란 사람 사는 관계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볼 때 순수한 정치만의 문제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기타의 사회·경제·문화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히 우리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는 정치를 떠난 경제·사회·문화의 문제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좋을 정도다. 따라서 社會 民主化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며, 政治 民主化 없이는 사회 민주화의 보장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치 민주화를 저지해 왔던 집권 정치 세력들은 '정치'란 개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주입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집단인 학교에 대하여 '중립성'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하거나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데 주력하여 왔다. 또한 정치 교육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이 미흡하다는 핑계로 독재 권력의 당위성을 도출하려고 하여 왔으며, 대학의 기능을 오로지 기술적 영역에만 한정시키고 인문·사회과학을 가능한 한 억제해 왔다. 이에 따라 학문적 전문가인 교수들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제당하였고, 어용 논리만이 전문적 견해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교수들의 기여가 컸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4·19로부터 한·일 회담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나타났던 우리 사회의 급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부의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고, 그후 계속하여 정부로부터 대학은 탄압을 받았고 유신기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교수

자신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서 대학 자주화 선언이나 교수 자율 선언 등을 하였다. '80 년대에 이르러 그동안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의 유일한 근거지였던 대학은 극심한 탄압 속에 피폐하였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생존에 급급하고 학생들은 학교밖의 정치 투쟁에 전념하는 듯했다. 그러나 '80 년대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교수와 학생들은 주체성의 상실로부터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였고, 정치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자주적 운영을 확립하려고 나서는 과정에서 정치적 관심은 한 단계 발전하여 社會의 政治 發展이 大學 自治의 關鍵임을 깨닫게 되었다.

정치 발전이 大學 發展에 직결되는 것은 분명하며, 대학 민주화와 대학의 사회적·정치적 기능 수행을 통하여 정치의 발전은 가능하다. 그동안의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뒤떨어진 정치 분야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90 년대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즉 대학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통하여 정치 발전을 이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대학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4. 大學 民主化를 통한 政治發展

학원 민주화 내지 대학 민주화의 요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 '국대안반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정권의 대학 탄압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1987년 헌법에서는 명문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들은 변함이 없고 정부의 대학 통제 내지 간섭은 여전한 실정이다.

앞서 본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大學 자체가 民主的으로 運營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學閥 共同體로서의 대학의 位相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종래와 같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단순히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대립적 관계로 한정지워서는 안 되며, 양자가 함께 사회가 요구하

는 학문 이론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自治에 있어서의 학생의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학사 운영에의 참여를 단순히 교권 침해로 규정하여 반발하는 교수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고, 正常的인 參與의 길을 保障함으로써만이 학생들의 적대적인 과격 행동을 大學改革을 위한 同伴者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교수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그들의 창조적 에너지와 결합될 때 비로소 발전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대학은 단순히 교육 기관이기 이전에 학문 연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大學生의 주된 관심은 크게 사회 변혁과 개인적 취업의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個人的 職業이나 出世를 지향하여 영어 공부나 고시 공부에만 몰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의 존재 의의는 상실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국력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變革에의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그들의 생각이 건설하게 사회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이 단순히 파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조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학문 연구의 장을 마련해 주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教授들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체제 종속적인 입장에 안주하거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시종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 생산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족의 창조적인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대학 교수들은 그 임무 수행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관과 세계관에 입각하여 전문가로서의 현실 분석과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적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학문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위상 설정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대학 자치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 대립이나 진보·변혁의 개념으로부터 경제적 분배 정의, 토

지공개념, 노동 문제, 농민 문제, 도시 문제, 환경 문제, 언론 문제, 통일 문제, 교육 문제 등에 걸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로서의 진리에 입각한 해결책을 요구받고 있다.

學問의 自由 내지 大學의 自治는 헌법 조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에 의해서 主體的으로 實踐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대학 주체들에 의한 대학 공동체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대학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치 민주화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서 대학 민주화의 성과로서의 學問共同體의 成就是 政治發展을 위한 바람직한 方向提示의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며, 이는 大學教育이 知識人の 社會的 役割을 교육한다는 의미에서도 정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90 년대의 정치 발전은 또다시 타협에 의해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격렬한 대투쟁을 거쳐야 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적 성과가 없는 투쟁과 희생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각 부분의 요구들이 기존 정치인들의 비생산적인 싸움 속에 내버려지지 않고 당위와 논리에 의해 올바른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大學의 役割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사회 현실은 지식인인 교수로 하여금 단순히 이론적인 면에서의 요구를 넘어서 실천적인 정치 변혁에의 참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학 민주화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민주화와 정치 민주화를 위한 교수들의 집단적인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나 '전교조의 대학위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政治發展에 의한 大學의 發展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극한적 대립의 문제는 결국 政治 영역의 落後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인 변혁의 여러 요구가 원만한 정치적 역량에 의해 수렴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만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견 수렴의 방식이 원활해지고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이 해소될 때, 사회 발전에 수반된 대학

의 위상 설정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고 대학의 본래적 기능은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다.

'80 년대의 사회적 갈등이 '90 년대의 정치 발전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재정립될 때, 대학의 사회적 기능은 미래지향적이고도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에 의해 그대로 이전되어 있는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官僚的 權威主義는 정치 발전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진리 탐구의 학문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발전은 그러한 관료적 권위주의가 청산될 때에만 가능하다.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등에도 불구하고 教育關係法에서는 여전히 대학 총·학장의 인사, 학칙 제정, 교수회의 권한, 교과과정, 대학 재정 등에 관하여 權力的 支配 내지 政治的 支配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재정·학사의 운영이 大學의 自主的 決定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대학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政治發展을 통하여 惡法 改廢가 이루어짐으로써 民主的 自主性이 확

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반단년의 문화 민족임을 자랑하고 일체로부터 해방된 지 45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학문적 이론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 권력이나 사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만 원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이다. 더구나 외부 세력의 지배·개입뿐 아니라 현실 속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누리기만을 원하는 내부 세력의 저해 요인조차 있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요컨대 大學發展은 정치 발전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고, 政治發展은 大學 民主化와 大學의 社會的 機能이 수행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그에 기초한 학문적 재정립을 이룸으로써 사회의 정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